

# ‘충청-중국포럼’ 설립준비 워크숍

일 시

2014년 12월 4일(목) 14:30~18:00

장 소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

## I. 프로그램

## ‘충청중국포럼’ 설립준비 워크숍

시 간		프 로 그 램
제 1 부	14:30-14:40	개 회 사      진행   후원표 (중국연구팀) 강 현 수 충남발전연구원장
	14:40-14:50	축 사    강 희 정 한중경상학회장
	14:50-15:00	내외빈 소개
제 2 부	15:00-15:20	1주제   • 충청남도 대(對)중국 교류협력 실태와 활성화 방안 (박 경 철 : 충남발전연구원 중국연구팀)
	15:20-15:30	2주제   • ‘충청중국포럼’ 설립 배경 및 운영방향 (박 인 성 : 충남발전연구원 중국연구팀장)
	15:30-16:00	3주제   • 충남도 사군 대 중국교류 현황 및 경험사례 발표 - 서산시 기획팀 김 중 민 - 당진시 대외협력팀 박 영 안
	16:00-16:10	coffee break
	16:10-17:50	종합토론      좌장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단장 - 충남도 국제통상과장 - 충남도 각 사군 대(對)중국교류업무 담당자 - 김 수 한 (인천발전연구원 중국DB팀장) - 홍 영 성 (전남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 윤 영 한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이 성 재 (전북발전연구원 기획팀장) - 김 중 혁 (대전대 중국언어문화학과) - 조 한 필 (충청타임즈 기자)
	17:50-	폐회 및 만찬

## II. ‘충청중국포럼’ 설립준비 워크숍 개요

### 1. 배 경

- 중국의 부상과 충남의 대(對)중국 경제 의존도 증가
  - 2013년 충청남도의 대(對)중국 수출의존도 47%(전국 평균 26%), 타이완 및 홍콩 등 중화경제권을 포함하면 65%
-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의 시각으로 대(對)중국 교류 활성화 및 이를 지역 발전전략과 연결하기 위한 전략 모색 필요
  - 충남 ‘서해안 비전’ 선포 및 충남발전연구원 ‘중국연구팀’ 발족
  - 대(對)중국 교류협력을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인적 교류 방면으로 확대, 강화 필요성 증대

### 2. 포럼 목적 및 운영방식

- 대(對) 중국 교류경험 및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한 플랫폼 구축 준비
  - 충남도 및 관할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업무 담당자간 경험 및 정보 교환
  - 충남발전연구원 중국연구팀이 사무국 역할 담당

### 3. 워크숍 일정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4년 12월 4일(목), 14:30-17:50, 만찬: 18:00-19:30
  -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공주시 연수원길 73-26)
- 참여 대상
  - 충청남도 및 시·군 중국교류업무 담당자
  - 중국교류 관련 학자, 기업인, 언론인 등
  - ※ 구체적 참여요청 대상자 명단은 별첨 참조
- 주최 충남발전연구원

## <토론요약>

### <공주시>

- 공주시의 경우 국제교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아서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함. 현재까지 진행된 국제교류의 경우 ‘백제문화’에 대한 문화교류가 주요 부분이었고, 일본에서 교류 요청이 많은 실정.
- 중국 교류의 경우 랴오닝성(遼寧省) 선양(沈陽)시와 우호협력을 맺었지만, 선양시의 규모가 너무 커서 실질적 교류는 없는 실정임.
- 지난 10월 세계 구석기축제를 개최하면서, 앞으로 국제교류의 주제를 ‘구석기’로 잡아야겠다는 분위기가 있었음. 앞으로 중국 베이징 방산구(房山區)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계획중인데 충남발전연구원 중국연구팀의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함. 중국과의 교류는 결국 인력과 콘텐츠의 문제인데, 백제문화만이 아닌 다른 콘텐츠 발굴에 힘써야 하겠다는 의견임.

### <부여군>

- 부여군도 공주시와 마찬가지로, 중국교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분위기임.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동적 교류가 이루어져 왔음.
- 금년도부터 국제교류에 대한 요청이 증가했지만, 부여군의 경우 국제교류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자매결연 의향서 서명까지만 진행하였음. 중국교류에 있어서 부여군은 문화교류에만 중점을 두고 있음. 느슨한 형태의 문화교류이다 보니, 교류를 통한 실익 부분에 대한 이견은 아직까지 없었음.
- 부여군도 중국투자유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중국연구팀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됨.

###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단장)>

-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최근 한·중 FTA체결 등 충남도의 대중국교류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때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중국연구팀이 신설됨. 중국 방문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중국에 대해 아는 것보다 중국이 우리에게

대해 아는 것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었음. 충남도는 민선6기 이후 해양중심의 경제발전에 대한 지방정책을 추진 중이며, 시기적으로 중요한 때에, 충남보다 앞서간 지자체 연구원분들을 모셨으니 그간 경험들을 들어보겠음.

## <김수한 (인천발전연구원 중국팀장)>

### ◎ 인천발전연구원 중국팀 운영사례

#### □ 인천-중국 지방교류 현황

- 인천은 항로와 해로 그리고 통일한국 시대에는 육로를 통해서 중국의 여러 지역과 연결됨으로써, 대 중국교류에 있어 교통과 물류 중심지로의 높은 접근성을 지님.
- 인천은 1993년 12월 텐진(天津)과의 자매도시 결연을 시작으로 현재 10개의 중국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결연을 체결했는데, 주로 지리적 근접성, 물류·항운 등 산업연계에 주안점을 두고 주로 환발해 권역 도시들과 교류 추진.
- 2007년 서부의 충칭(重慶)시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내륙 도시와의 결연을 체결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 허난성(河南省)과 우호결연을 체결하는 등 교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 □ 대(對)중국 교류·비즈니스전략 수립을 위한 해외지역 연구

- 지역 별 성장 거점 육성을 중심으로 한 내수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중국 발전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중국 지역연구 진행
  - ① 랴오닝지역연구(2013년) → ② 중부지역연구(2014년) → ③ 산둥지역연구(2015년상반기) → ④ 베이징-텐진-허베이(京津冀)광역수도권연구(2015년하반기)
- 추후 <중국권역거점역량분석(가칭)>과 같은 형태의 연간보고서 발간, 중국 교류·비즈니스 토대자료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 필요
- 시도연구원 공동사업과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지역 별로 산재·파편화되어 있는 중국연구 역량의 집약과 시너지 효과 기대

□ 한중DB / 한중Zine /한중DB총서

- 2007년부터 한중DB운영 (홈페이지/ 월2회 업데이트)  
인차이나브리프, 최신중국동향, 추천연구보고서, 리포트리뷰, 최신기사, 신간 소개 등을 통해 관련 정보집적
- 웹진 한중Zine (2004년 1월 20일 창간/ 10년 기념호 준비中)  
월 2회 발간, 2500여명 on-line발송
- 한중DB총서
- 연말 이슈페이퍼 선별하여 단행본 제작

□ 중국기업인 연수 프로그램

- 인천발전연구원은 2014년 ‘톈진시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6 일 간 인천에서 톈진 주요 국유기업 경영진 24명에 대한 연수 진행
- 인천 산업시설 시찰 및 전문강의를 통해 인천의 발전현황 및 투자지로서의 여건 심층적으로 교육하고 전달
- 다양한 시민교류 활동을 통해 인천의 매력을 매개로 한 대 중국 공공외교 (公共外交) 전개
- 톈진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및 참여자 소속 기업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인천 중국교류·비즈니스 도시외교 플랫폼 INCHINA 포럼 기획中

- 민학산관 각 영역에 산재해 있는 인천의 중국교류 역량을 집적, 對중국 교류·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국 경제·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교류·비즈니스 도시외교 기반 구축을 통해 업무공조와 시너지 효과 제고

□ 주요사업(안)

- 공공기관 중국실무자 네트워크 (2014년 3월 수립)
- 중국 한인기업글로벌네트워크 계획
- 중국유학생공공외교 (인턴쉽 연계)
- GMC 강좌 운영 계획

## ◎ CDI 중국팀 운영 관련 제언

- 시도연구원 중국역량 허브 역할 기대
  - 산재·파편화 되어 있는 시도연구원 중국연구 역량을 집약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이 필요함
  - 협의테이블 구성 및 공동연구 과제 선도적 제안
  - 각 시도연구원에서 중국을 권역·성별로 나누어 지역 토대연구 진행
  - 방한 중국전문가 초청 공동세미나 개최
  - “한중 지방DB” 공동 구축 및 운영
- 對중국 지방외교 연구 기조 수립
  - 경제·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연구기조로서 대 중국 교류·비즈니스 지방외교 수립 필요
  - 내향적 국제화, 공공외교, 인문유대 등 연구영역을 확대하고 이의 연구결과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 원내 및 지역 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풍토조성 필요
  - 관광+중국/ 농업+중국 / 산업+중국 등
- 지역 전문가·실무진 네트워크 구축
  - 도내 대학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실무자, 기업인, 유학생 등이 참여하는 중국교류역량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대 중국교류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
  - 투자유치 및 산업경제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충남인재개발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도정(道政) 연구기반 마련 필요
  - 이 같은 기반에 기초하여 지역 장소성에 기초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팀 육성 기대

## <홍영성(전남발전연구원)>

### ◎ 전라남도의 중국교류 현황

- 전남은 중국 저장성(浙江省)과 98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한중포럼을 개최하며 꾸준한 교류를 진행해 왔음(전남도지사가 매년 중국 방문)
- 전남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농업’을 주제로 교류를 진행함(전남의 경우 중국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어려운 것도 이유)

### ◎ 전남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현황

- 전남발전연구원 내에 중국연구센터는 만 2년 째 운영 중임(지방 연구원의 경우 인천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에 이어 중국연구를 시작함)
- 연구과제 ; 중국연구센터는 매년 총 3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함
  - 2013 ; 한중 FTA에 대응한 전남 가공식품;유자차의 대중국 수출방안  
친환경 농수산업을 활용한 대중국 체험 관광객 유치방안  
투자이민제 시행에 따른 중국투자유치 방안
  - 2014 ; 무안공항, 중소상 상인진출(해외투자) 등 연구사업 진행
- 중국연구포럼 개최 ; 학술행사로 중국연구포럼을 매년 2회씩 개최하고 있음 ; 학,관,산으로 구성하며, 전남과 관련된 중국의 이슈들로 주제 구성(이번 행사는 농수산물식품 안전성 강화 전략으로 진행), 친환경산업 및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주제를 통해 전남의 특색을 살리고 있음.
- 소식지(중국통(通)) 발간 : 시군관계자 및 일반인들을 상대로 중국의 전체동향, 중국과 전남의 경제통계, 중국 농산물 가격 등 전남에 필요한 소식들을 격월로 발행하여 전하고 있음.
- 국제세미나 진행 : 저장성 사회과학원과 매년 학술교류를 진행하여 꾸준한 왕래를 하고 있음. 10월에도 농수산업 관련 주제로 진행(공산식품안정성), 중국관광객 유치방안으로 연구과제 수행. 향후 장시성(江西省) 사회과학원과도 교류할 계획.

### ◎ 충남발전연구원 중국연구팀을 위한 제언

-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지원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연구의 포커스는 한 지역으로 집중하는 것이 관건이며, 기존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이 필요.

- 최근 지자체에서 중국지식인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중국전문가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인력 보충이 필요함.

### <윤영한(충북발전연구원)>

#### ◎ 충청북도 및 충북발전 연구원의 중국교류 현황

- 충북의 경우도 중국교류에 대한 형태는 다른 시도와 비슷함. 특별한 프로그램은, 중국유학생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음. 충북은 바다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타시도에서 교류를 하고 있는 연해지역과의 교류 거점이 아닌 청주공항을 물류전문공항으로서 역할분담의 기능으로 교류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충북발전연구원도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사회과학원과 MOU를 체결하였고, 한중FTA에 힘입어 앞으로 연구원 자체에서도 중국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충남발전연구원처럼 중국연구팀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음.

#### ◎ 충남발전연구원 중국연구팀을 위한 제언

- 충청중국포럼 설립의 이유 명확화 ; 충청권 포럼이라면, 충남+대전+세종+충북이 함께 해야 할 것임. 오늘의 자리는 시작의 단계로서, 먼저 포럼 설립의 이유를 명확히 했으면 함.
- 한중 FTA 대응 전략 ;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느슨한 형태의 FTA와는 확연히 다른 한중FTA가 이제 진행되는데,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방안이 필요함.
- 지방외교의 한계 고려 ; 지방정부의 교류는 실질적으로 교류를 이어가야 될 주체인 민간들로 전달되어야 함. 기업, 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민간베이스를 항상 염두해 두고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임.

### <김종혁 (대전대학교)>

- 대중국교류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자 함. 중국사람들은 한국과의 교류

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반면, 한국사회는 아직까지도 중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우리 지방정부도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대응해야 함. 당진시와 서산시 발표에서 중국교류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중국인의 특성상 단기적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친구가 되고 장기적 신뢰관계를 쌓아가는데 힘써야 함.

- 중국에 대한 공부와 선행되어야 하며, 전략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임. 전문인력의 보충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선 대(對)중국교류 담당자들이 중국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나라 지자체의 대응은 너무나 미온적임.
- 중국에 파견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단기적 파견은 효과나 성과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격 요건 및 성과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연해지역의 동남부는 모두 잘 살고, 국제교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틈새시장으로 서북지역을 노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됨. 현재 중국은 서북지역도 경제성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으며, 연해지역에 비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류를 실제로 원하고 있을 것임.
- 중국과의 교류를 MOU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조한필 (충청타임즈)>

- 천안 아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로서, 중국교류에 대한 현황을 장기적으로 지켜봐 왔음. 천안시의 경우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 현급시 원딩(文登)시와 10년간 자매결연을 맺고 장기간 동안 많은 투자를 하며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 왔지만, 최근 원딩시가 위해시 원딩구(文登區)로 편입되면서, 시와 구의 위상 문제로 인해 그간 축적된 교류기반이 와해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
- 본인은 지방정부의 대(對)중국교류를 ‘속빈강정’에 비유함. 공무원사회의 특성상 중국교류 전담인력을 꾸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외부 전문가의 편입도 쉬운 일은 아닌 것처럼 보임. 따라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중국연구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충남도내 시군 지자체에서 충남발전연 중국연구팀에 시

군 중국교류 관련 현안 용역연구과제 발주를 통한 업무 추진도 필요하다고  
생각함.